통신사행 동래부 왜학역관과 일본 시가문학

안수현*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통신사 역관과 일본어 담론
- III. 통신사 역관의 일본 시가문학
- IV. 나오며

| 국문초록 |

종래 조선후기 통신사 문학연구의 주체는 통신사행록 혹은 한시담론으로 전개된 필담창화를 주도한 삼사(三使)와 제술관 등 양반사대부 중심이었다. 본고는 통신사행에 수행한 또 다른 문학담론의 주체로서 동래부 소속 왜학역관의 일본문학에 주목하였다. 신분상으로 양반사대부의 하위에 속했던 역관계층의 문학은 넓은 의미에서 이른바 위항(委巷)을 중심으로 활발한 시사(詩社)활동을 전개한 양상과는 달리, 동래부 소속 왜학역관은 같은 중인층이면서 그들의 일본 시가문학 활동은 공개적으로 담론화 할 수 없는 주변의 문화였고,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부 소속 왜학역관은 통신사행의 기능적 활동뿐만 아니라, 와카(和歌)와 하이쿠(俳句)와 같은 일본의 정형시가문학의 이해자였으며 창작의 주체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학역관에 의한 일본문학의 호출을 둘러싼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waka1162@pusan.ac.kr

근본적인 배경은 조선통신사 수행에 참여한 역관의 언어담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작동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제기는 된 아니었으나 17세기 후반부터 ‘소통’ 문제의 발생은 오랫동안 일본어 권력으로서 자리매김해 온 『첩해신어(捷解新語)』의 추락은 조선과 일본 양측의 역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텍스트의 추락된 권위와 오해를 청산한 것은 통신사행에서 활약한 동래부 왜학역관의 언어적 자질과 문학적 소양의 발현에 의한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유교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조선 내에서 문학이란 한문학(漢文學)이었던 만큼, 일본문학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존재했다하더라도 제도권 문학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왜학역관 계층이 향유했던 일본문학이란 ‘숨겨진’ 문학적 활동에 다름 아니었다. 조선의 문학공간에서 은폐된 일본시가문학은 통신사행의 시공간에서 ‘드러남’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왜학 역관에 의한 와카(和歌)와 하이쿠(俳句)의 동시 호출과 창작활동은 통신사문학 주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문(漢文) 중심의 필담창화의 종속적, 보조적 존재로 머문 동래부 왜학 역관의 전모는 시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일무역 실무 담당자와 통신사행 수행담당자로서 이른바 ‘동역장치’로서만 해석된 제한적 사유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일본 시가문학을 이해하고, 또한 창작을 통하여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긍정적 외교문화담론의 형성에 기여한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교양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주제어 : 동래부 왜학역관, 중인, 하이쿠, 와카, 공간

I. 들어가며

조선시대 통신사는 파견 목적과 내용에 따라 ‘사(使)’와 ‘행(行)’을 각각 분리시켜 통신사와 문위행¹⁾으로 구분하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조선

1) 문위행(問慰行)은 대마도측에서 조선역관사(朝鮮譯官使)라고 하였고, 사료에 따라서 도해역관(渡海譯官)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통신사는 문관 고위 관리의 정사(正使) 파견은 ‘사(使)’이고, 대마도로 파견된 문위행은 역관이 정사인 ‘행(行)’이라고 했

말기의 수신사(修信使)²⁾와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³⁾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본고는 통신사의 문학 주체였던 양반사대부의 활동과는 달리 동래부 소속 왜학역관의 일본문학⁴⁾에 주목하여 통신사 수행과 관련된 일본 시가문학의 이해와 창작 양상을 문화사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양국의 소통을 위한 언어담론의 핵심에 자리매김했던 왜학역관의 필수학습서 『첩해신어』의 권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느새 현실과 맞지 않는 어색함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양국 간 소통의 균열이 감지되었고 그에 대한 서로의 오해와 불만은 통신사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물리적 언어담론이 예상하지 못한 정치담론으로 일변한 것임에 다름 아니다. 조선과 일본이 공유하던 한자담론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동일한 위항문학의 참여자이면서 소수자 문학담론에 불과했던 동래부 소속 왜학역관이 보여준 일본 시가문학의 발현은 통신사 문학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제시는 간

다. 문위행의 구성은 당상관 1-2인, 당하관 1인 외에 군관 포수 취수 등을 포함하여 적을 경우에는 40-50명이었지만 대체로 70명을 넘었다. 즉 문위행은 왜학역관(倭學譯官)이 정사(正使)이며, 대마 도주가 에도(江戸)에 참근교대(參勤交代)한 것을 위로하거나 대마 도주 막부(幕府)의 경조사를 위로 하례하기 위해 1630년대 이후 1860년까지 모두 54차례 파견되었다. 에도막부에 파견되는 조선통신사와 성격이 다른 대마도를 목표로 파견된 외교사절이다. 수행통역관이 아니라 실무적 외교업무를 수행한 국가파견 사절이었다. 池內敏 『譯官使考』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62), 2016, 125~127쪽.

- 2) 수신사(修信使)는 종래의 통신사(通信使) 이후 1876년(고종13) 강화도조약 이후 1876년과 1880년 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한 근대적 차원의 외교사절을 말한다.
- 3) 국내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는 세계정세에 대한 자각과 대처의 일환으로 1881년 1월 11일 조준영(趙準永)·박정양(朴定陽)·어윤중(魚允中)·홍영식(洪英植) 등 양반 자제를 중심으로 조사시찰단 38명(위원 12명, 수행원 26명)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이라는 명칭이었으나 70여 일에 걸쳐 일본의 내무·농상무·외무·대장·문부·사법(司法)·공부(工部)·육군·세관(稅關) 등의 조사 및 연구 목적이었다.
- 4) 통신사 수행에 참여한 역관 구성은 최고위 통역관인 당상역관을 비롯하여 상통사, 차상통사, 압물통사, 소통사, 훈도 등 통신사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넓은 의미의 역관문학은 연구사적 검토에서 볼 때 위항문학(委巷文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위항문학은 17세기 말에 성립되기 시작하여 18, 19세기에 번성한 문학으로서 개화기까지 중인계층과 평민계층에 의해 생산된 모든 문학 활동과 작품을 일컫는 말이다. 중인문학은 역관을 중심으로 중인과 기술관, 서얼, 아전, 서리, 향리 등이 주축이 되었으며⁵⁾, 『풍요속선』에는 여류시인과 승려의 작품도 포함하고 있다.⁶⁾ 이는 신분계급상의 하부계급까지 참여했음을 말하며, 작품 세계의 자유로움과 남녀의 불평등 사회계급의 차별화를 타개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이든 시대 전환기에 제1신분이 쇠락하면 제2신분이 그 자리를 담당하게 된다는 주장 혹은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 사회평등을 주장한 중인문학(中人文學)이 평민문학의 시초이며 특히 조선시대 제2신분 가운데 역관이 이에 해당 된다고 하였듯이 역관은 제도적으로 양반사대부의 하위에 위치한 계층이다.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적 신분의 차별화 속에서 교육의 기회가 늘어난 중인계층은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직책 또한 한품(限品)에 가로막혀 자신들의 신분상의 차별과 사회에 대한 현실비판 등을 문학을 통해 표출했다. 문학 외에도 회화, 판소리, 시조창 등의 음악과 시조, 가사의 새로운 양산과 위항한시(委巷漢詩)가 대두되었으며, 연극분야의 탈춤이 발전하였다.⁸⁾ 1660년 역관이 참여한 『육가잡영(六家雜詠)』, 1712년 홍세대의 『해동유주(海東遺珠)』 등 詩社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1737년 고시언 등의 『소대풍요』, 1797년 『풍요속선』, 18세기

5) 구자균, 「근대적 문인장훈에 대하여」, 『문리논집』 7, 1963, 26쪽. 천병식, 「委巷文學의 특성과 발전」, 『인문논총』 3, 1992, 46쪽.

6) 任侑旻, 「18세기 委巷詩集에 나타난 中人層의 문학세계」, 『泰東古典研究』 1, 1984, 175쪽.

7) 김양수, 「조선시대의 譯官등 中人活動을 찾아서」, 『역사와 실학』 39, 2009, 203쪽.

8) 정병욱, 「이조후기 시가의 변이과정」, 『창작과 비평』 31, 1974, 138쪽.

말 松石園詩社 등의 편찬 양상은 漢詩 문학을 중심으로 위항문학이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로서 한태문은 1682년 숙종 8년 통신사행시 2차에 걸쳐 조선과 일본 양국 문사 간에 이루어진 필담창화 『天和二年八月廿有九日韓客酬唱』을 통해 17세기 이후 문학과 일본 문화계의 전반적인 성장을 문화교류사적 의의를 부여하였고⁹⁾, 강명관은 조선후기 여항인의 정의를 조선 후기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세력이라 규정하되 중앙과 기술직 중인으로 세분하였고 그들의 활동이 남긴 산물을 여항문학이라 하였다. 그러나 중세문학의 틀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며 또한 근대적으로 단언하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한다¹⁰⁾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양반 사대부 중심의 기존 조선통신사 문학 주체의 시선을 확대하여 동래부 소속 왜학역관에 의한 와카(和歌)와 하이쿠(俳句) 등 일본 정형 시가문학의 이해 및 창작 양상을 호출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II. 통신사 역관과 일본어담론

1. 추락하는 『첩해신어(捷解新語)』

조선시대를 통하여 사대교린과 어전통사(御前通事)의 필요성에 의해 역관 가운데 정삼품 당하관이 한품임에도 불구하고 종1품 승록대부, 정2품 자헌대부, 종2품 가선대부의 품계까지 오른 것은 조선의 대외정책 상 외국어 중시와 역관 우대를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사대정

9) 한태문,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韓客酬唱』 연구」, 『항도부산』 33, 2017, 2쪽.

10)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비, 1997, 410쪽.

책과 일본과의 교린관계의 추진에서 외교사절의 대응에 역관의 필요성을 『通文館志』 서문¹¹⁾에서도 밝혔다. 사역원¹²⁾의 설치는 조선의 개국 직후 1393년(태조2)이며 왜학(倭學) 교육의 실시는 『대종실록』 14년 10월 26일 丙申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역원(司譯院)에 명하여 일본어를 익히게 하였다. 왜객통사(倭客通事) 윤인보(尹仁甫)가 상언(上言)하기를, “일본인의 내조(來朝)는 끊이지 않으나 일본어를 통변하는 자는 적으니, 원컨대,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전습(傳習)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¹³⁾

위와 같은 상황을 통해 왜학역관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일본어 학습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1492년(성종23)년에 최초의 일본어 학습서 『이로파(伊呂波)』는 1책 22장 구성으로 1장에서 4장까지는 일본문자 밑에 한글 독음표기를 붙인 ‘이로파사체자모각사십칠자(伊路波四體字母各四十七字)’이며 나머지는 일본어 서간문 ‘이로파합용언어격(伊路波合用言語格)’이다. 15세기 말 한글과 일본문자의 음가(音價) 추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¹⁴⁾이기도 하다. 『첩해신어(捷解新語)』의 간행은 정유재란 이후 일본어 역관 교육용이었다. 간행목적은 서명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첩해신어(捷解新語)』란 ‘新語(일본어)’를 ‘신속하게 해독하

11) 本朝有詞役院專掌事大交隣之事 上下數千年間朝聘應對有能以紓患

12) 사역원(司譯院)은 1393년(태조2)에 설치되어 1894년(고종 31)에 폐지되었다. 정(正 - 정3품), 부정(副正 - 종3품), 첨정(僉正 - 종4품), 판관(判官 - 종5품), 주부(主簿 - 종6품), 한학교수(漢學教授 - 종6품), 직장(直長 - 종7품), 봉사(奉事 - 종8품), 부봉사(副奉事 - 종9품), 한학훈도(漢學訓導 - 정9품), 청학훈도(淸學訓導 - 정9품), 몽학훈도(蒙學訓導 - 정9품), 왜학훈도(倭學訓導 - 정9품), 참봉(參奉 - 종9품) 등의 관리를 두었다.

13) 命司譯院習日本語 倭客通事尹仁甫上言 日本人來朝不絕 譯語者少 願令子弟傳習從之

14) 김남경, 『조선시대 역관과 번역사에 관한 연구-과거의 역관고찰과 근대 번역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45쪽.

는(捷解) 책'이라는 뜻이다. 일본어 오른쪽에 한글 발음을 적고, 왼쪽에 그 해석을 단 구성이다. 『첩해신어(捷解新語)』의 저자 강우성(康遇聖, 1581년~ 미상)은 임진왜란 진주성 함락 시 당시 12세의 나이에 포로가 되어 오사카(大阪)와 교토(京都)에 억류된 지 약 10년 만인 1601년 귀국하였다. 1609년(광해군) 왜학역과(倭學譯科) 증광시를 통해 역관이 다섯 차례에 걸쳐 부산훈도(釜山訓導)에 임명되어 일본과의 외교통상임무를 수행하였다. 왜학역관으로서 세 차례 통신사(1617년과 1624·1636년)를 수행했다. 일본 억류기간 중 체득한 일본어와 풍속 등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1618년(광해군 10)경에 『첩해신어(捷解新語)』의 초고를 완성했다. 교재가 완성된 것은 1636년 이후로 추정¹⁵⁾되며 1676년 숙종 때 교서관에서 활자로 간행 배포되었다. 1682년(숙종8) 왜학우어청(倭學偶語廳)이 설치되어 역관 박재흥(朴再興)과 안신미(安愼美)에 의해 본격적으로 일본어교육이 시작되었다. 이후 1748년 조선은 『첩해신어』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왜학역관들에 의해 내용을 개수하여 『개수첩해신어(改修捷解新語)』 10권 12책을 간행¹⁶⁾하였다. 1796년 왜학역관 김건서(金健瑞)는 『첩해신어문석(捷解新語文釋)』을 12권 4책으로 편저¹⁷⁾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사대교린 정책의 일환으로 역대 국왕은 외교사절의 대응에 필요한 역관의 양성과 다양한 장려 시책에도 불구하고, 양반 사대부 관료층에 의한 차별과 천대로 인하여 중인계층 가운데 역관의 신분상승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어려서부터 소수의 외국어 인재들을 선별하여 사대부 못지않은 힘든 교육과정을 마

15) 종래 왜학학습서는 伊呂波·消息·書格·老乞大·童子教·雜語·本草·議論·通信·鳩養物語·庭訓往來·応永記·雜筆·富士 등 14종이었으나, 실용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1678년 이후 『첩해신어(捷解新語)』로 단일화하여 사용되었다.

16) 김남경, 앞의 논문, 47쪽.

17) 김남경, 위의 논문, 48쪽.

친 역관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신분적, 경제적 불안은 전혀 새로운 곳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678년 이후 조선의 왜학역관과 일본인 사이 이루어진 일본어 소통의 문제가 부상되었다는 점이다. 일본 측 기록 『樂郊紀聞』¹⁸⁾에 의하면 당시 조선통신사 수행역관이 휴대했던 『첩해신어(捷解新語)』에 관하여 나는 일화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⁹⁾

조선통신사 역관이 평소 공부해 오던 倭學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책의 내용 중에 틀린 곳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미나가 도모스케(住永友輔)가 그 틀린 곳을 정성을 들여 깨끗하게 수정하여 통신사 역관에게 알려주었으나 전혀 수긍하지 않았다. 그 역관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수정한 연유를 자세히 일러 주었으나 역관이 대답하여 말하길, 자신이 공부한 학습서는 에도(江戸)의 말을 그대로 옮겨 쓴 까닭에 것이어서 틀린 내용은 결코 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대들이 쓰는 말이 쓰시마(對馬)의 말이므로 곧 방언이다. 에도의 말을 모르고 어떻게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하고 비웃었다고 한다. 본래 조선인들은 방자한 풍습으로써 좋은 일 본을 우리러 생각하면서, 일본인이 조선말을 배우는 사람은 애써 조선의 도움 말을 오로지 배우는 연고와 같이, 일본어의 경우도 에도(江

18) 쓰시마(對馬)의 번사(藩士) 나카가와 엔료(中川延良)에 의해 수집된 쓰시마(對馬)의 기담 및 괴담집이다.

19) 彼國の者、本邦の詞を稽古する書物有り、それが中に間違ひたる事ありしを、或時住永友輔清作弟其違ひし事を彼者へ申せしに承知せず、一トわたりには信ぜぬるなるべしとて、能其ことわけを委しく申聞せしに、彼者答て、是は江戸の詞を書寫したるものにて、是に誤る事は決してなし。貴様などが云うは對馬の詞故、夫はなまりなり、江戸の詞を知らずして、いかでか此語を弁へ得んやとて、あざ笑いたりとぞ。元來彼國人、我儘なる風習にて、よくもあしくも、己が國を上へなき事に思う上に、彼國の詞を學ぶ者つとめて彼が都の詞を専らとする事故、此方にも江戸のこそ、眞の日本語と心得てかくいひしなるべし。元江戸にも京都にもあらぬ聞誤りの詞を書寫せしもの也と、友輔申せし由。同年十月同人話。

戶)의 말을 배워야 지금 통용되는 일본어로 배워야 함을 강조하여 말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통신사 역관이 말한 그 책은 본래 에도(江戸) 말도 아니고 교토(京都)말도 아닌 틀린 말을 옮겨 썼다라고 도모스케(友輔)가 기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어 학습서(本邦の詞を稽古する書物)는 『첩해신어(捷解新語)』를 가리키는 것은 틀림없으며, 책속의 내용 중 틀린 곳을 지적받은 조선인 역관은 쓰시마의 말이라고 일축해버린 점은 흥미롭다. 역관의 신념은 조선의 표준어가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도읍의 말이듯이 일본 역시 에도(江戸)의 말이 표준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첩해신어(捷解新語)』에 사용된 일본어는 전반적으로 중세 말기에서 근세 초기에 걸쳐 사용된 교토(京都) 부근의 구어체라고 지적²⁰⁾되고 있듯이, 일본의 정치 중심이 관서에서 관동으로 이전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통역의 실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2. 왜학역관의 문학적 소양

일본인에 의한 왜학역관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는 ‘통사(通事)’의 존재를 간과할 없는 다음과 같은 연유가 있다. 통신사 교류 이후 역관의 자질 저하와 반대로 ‘통사(通事)’에 대하여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 기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겠다. 예컨대 일본 측의 『通航一覽』 『金溪雜話』 등의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²¹⁾

20) 安田 章, 『朝鮮資料と中世國語』, 笠間書院, 1980, 138쪽.

21) 通辭を朝鮮音にて「トクソウ」と云うなり、對馬の通辭ばかりにあらず、朝鮮人の内にて日本の語に通じた人、通辭職になりて來る事なり、然れば兩方に通辭あるなり、これはいかにして和語を學びたるとなれば、彼釜山の和館に常に對馬の人在留する事故、幼少より朝夕館中に入出して、賃錢を求めずして薪水の勞を助く

통사(通辭)를 조선말로 ‘토쿠소(トクソウ)’라고 한다. 쓰시마의 통사 뿐만 아니라 조선인 가운데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 통사직이 되어 오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양국은 통사가 있는 법이다. 이들이 어떻게 일본어를 배웠는가 하면 조선의 부산에 있는 왜관에 항상 쓰시마 사람이 거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침저녁 왜관을 출입하여 돈을 받지 않고 장작과 물을 제공하는 노동력을 제공해 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년을 거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어가 능숙하게 된 것이다. 통신사행 때 그 사람들도 선발되어 통사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인용된 기록에 나오는 통사는 중앙에서 파견된 역관이 아니라, 왜관이 소재한 부산에서 실생활에서 얻은 체험으로 회화를 익힌 사람 즉 소통사를 가리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유학자 미나미카와 긴케이(南川金溪)는 1764년 통신사 수행 역관이었던 이명화(李命和)를 만나 그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²²⁾

나도 이명화(자는 聖欽)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두 번 접견하였다. 이 사람은 즉 차상통사(次上通事)직을 맡아 도래하였다. 일본어가 조금이라도 복잡한 내용은 통하기 어려웠는데, 예를 들어 오늘 날씨와 관련된 안부인사는 통하였으나 조금 어려운 일 혹은 긴 문장은 그 말 전후 상하를 뒤집거나 거꾸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るなり、此の如く年月を経れば、自然に和語に通ずるなり、され信使來聘の時、その者どもを撰びて通辭をすることなり。

- 22) 予も李命和字は聖欽という者と一、二度接見せり、この人は、即ち次上通事の職をつとめて來れり、和語も格別入組みたる事は通じがたく、たとえば今日好天安否という事は通ずれども、少しむつかしき事或は冗長なる事は、その語前後上下顛倒錯出して、きこえぬ事多きか、吾國の平仮名和歌俳句をも、少々ずつは習居たり、人の求めに応じて古歌などを書けるを多く見及べり、予がために、あの山の月が鳴たか杜鵑という發句を寫贈れり。

우리나라의 히라가나로 쓴 와카와 하이쿠는 다소 익힌 듯하고 그가 몹시도 바라는 듯하여 이에 응하여 옛 노래 등을 써 준 경우가 많았다. 그를 위하여 ‘あの山の月が鳴たか杜鵑’라는 발구(發句)를 써서 선물하였다.

상기의 기록과 같이 이명화가 차상통사(次上通事)의 직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실력은 ‘통사(通事)’보다 능통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와카와 하이쿠와 같은 일본시가에 관한 지식은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이쿠가 상당한 수준의 작품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에도 중기 기행문학의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를 흠모하여 그의 흔적을 밟으며 영향을 받은 하이쿠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다키노 효스이(瀧瓢水, 1684-1762)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온고집(溫故集)에는 조풍(藻風)이라 하나 의심스럽다. 효스이(瓢水)가 그의 초명이라 전해지나 이 또한 모를 일이다. 옛날 좌대신(左大臣)의 와카(和歌)를 바탕으로 하이쿠(俳句)로 다시 불러 그 경지가 실로 묘하다. 혹은 첫구를 고쳐 바쇼(芭蕉)로 무지한 자의 閑田子에게 미루어 상세히 명기하지 않았다.²³⁾

인용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さてはあの山の月が鳴たか杜鵑」의 창작배경은 후지와라 사네타다(藤原實定)²⁴⁾의 작품, 즉

23) 溫故集には藻風とあり、不審。瓢水、初名藻風と云ひたるか知らずこの詠は、かの左大臣どのの古歌より取り得て至妙なり。あるひは初句一こ彙と直して、蕉翁とし其角となすは知らぬ者のいつはりなり。閑田子にゆづりて委しくはしるさず。

24) 후지와라 사네타다(藤原實定, 1139-1191), 가마쿠라(鎌倉) 초기 일본 중세문학의 대표적인 선구자 후지와라 데이카(藤原定家)의 사촌이다. 유능한 정치인이기도 하였으나, 특히 당대의 교양인으로서 한시와 와카에 조예가 깊었으며 만권 이상의 서적을

두견새 소리 / 반기어 뛰는 가슴 / 뒤돌아보니 / 그대 오간 데 없이 /
새벽달만 아련히

ほととぎす / 鳴きつるかたを / 眺むれば / ただありあけの / 月ぞ
残れる (81 · 百人一首)

다키노 효스이(瀧瓢水)는 후지와라 사네타다(藤原實定)가 부른 와카(和歌)를 바탕으로 하여 하이쿠(俳句)로 개작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무심한 달님 / 어느 적 울었던가 / 저 보소 두견새
さてはあの / 月が鳴いたか / ほととぎす

다키노 효스이(瀧瓢水)는 기행(奇行)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와카의 내용을 즉흥적으로 하이쿠로 축약하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바로 이러한 그의 작풍에 대하여 조선의 역관 이명화가 견비한 일본어 실력과 시가 문학의 이해도를 시험하고자 한 미나미카와 긴케이(南川金溪)의 의도가 깔려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이쿠의 중심 소재 두견새는 오랫동안 헤어져 먼 곳에 있는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자연경물이며, 일본의 경우 여름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와카의 정취는 님의 방문을 기다리다 지쳐 새벽까지 흐르는 시공간적 시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련한 새벽달의 존재는 사모하는 님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사랑의 매개체 기능을 하지만, 하이쿠의 달은 아련한 달의 속성이 아니라, 차갑게 변해버린 달이며 심지어 울음조차도 제거해 버린 작가의 반전이다. 다시 말해 ‘반전의 하이쿠’를 의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선통신사 역관이 견비한 일본문학의 이해도를 시험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에 의한 조선통신사 역관의 언어담론과 문학담론에 대하여

소장한 장서가였으며, 관현에도 뛰어난 인물이다. 後徳大寺左大臣(千載和歌集·夏·61)

회의적 시선을 던진 것은 통신사의 정사 조엄(趙嚴) 또한 『해사일기(海槎日記)』(二) 「十二月十六日戊戌」²⁵⁾에 남긴 바와 같이 일본어 역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알 수 있다.

아침에는 싸락눈이 뿌리고 흐리고 차가왔다. 서북풍이 불었다. 남도에 머물렀다. 양국의 말이 서로 통하는 것은 오로지 역관에게 의지하는데, 수행하는 역관 10인에 저들의 말에 달통한 자는 매우 드무니 참으로 놀랍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왜학(倭學)의 생활이 요즘 와서 더욱 쓸쓸하고, 조정의 권징(勸懲)도 근래에 허술하기 때문이다.

조선과 일본 양국의 원활한 소통은 역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하다 보니 통신사행에 10명이나 데리고 왔음에도 일본어에 정통한 자가 매우 적음에 참으로 놀랐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다름 아닌 왜학역관의 생업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권장과 징계 또한 느슨해졌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역(首譯)들이,

首譯들이, “물명(物名)을 왜어(倭語)로 적은 책은 역원(譯院)에도 있으나, 그것을 차례차례 번역해 베끼기 때문에 오류가 많고, 또 저들의 방언이 혹 고쳐진 것도 있어 옛날 책을 다 신빙할 수 없으니, 요즘 왜인을 대할 때 그 오류를 바로잡아 완전한 책을 만들어 내어 익히면 방언과 물명을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들과 수작할 무렵에 반드시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한다. 그래서 세 사신이 상의하고 바로잡게 허락해 주어 현계근(玄啓根)·유도홍(劉道弘)을 교정관(校

25) 朝微雪陰寒西北風 留藍島 ○兩國言語之相通 全賴譯舌 而隨行十人 達通彼語者甚鮮 誠可駭然 此無他 倭學生涯 比益蕭條 朝家勸懲 近亦疏虞故耳 首譯輩 以爲倭語物名冊子 譯院亦有之 而以其次次翻謄之 故訛誤既多 且彼人方言 或有變改者 舊冊難以盡憑 趁此日對倭人時 厘正其訛誤 成出完書而習之 則方言物名 庶可洞知 如是則與彼人酬酌之際 必無所碍云 故三使相議 許其厘正 以玄啓根劉道弘 定爲校正官 使首譯而董飭之 未知可能作成書否也

正官)으로 정하고 수역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였는데, 완전한 책을 만들지 알 수 없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조엄은 통신사 역관에 대한 이미지는 회의적이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통신사행을 마치고 조선으로 귀로 중에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오사카 객관에서 도훈도(都訓導) 최천종(崔天宗)이 쓰시마 전어관(傳語官) 스즈키 덴조(鈴木伝藏)에게 살해당한 사건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같은 『해사일기(海涯日記)』(五) 「五月初六日丁巳」조26)에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교린(交隣)할 즈음에 국경을 나간 사신의 의사 표현이 오로지 역관의 혀에 의지하므로 당초 역관을 설치할 때 지극히 긴요하다고 여겼는데, 편비가 있는 지금은 더욱 역관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믿어졌다. 수역 최학령(崔鶴齡)·이명윤(李命尹)은 비록 옛 명역관처럼 사려가 많고 왜어를 잘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사람됨이 모두 단단하였다. 일찍이 내가 동래 부사로 있을 적에 최학령은 지난 일 때문에 나에게 허물을 입었었는데, 수행원의 차출이 있자 나는 그의 허물을 모두 씻어주고 임용하였으며, 이명윤은 스스로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여기는 자였다. 이번 사변이 있는 뒤 나는 두 사람에게 이르기를, “만약 적을 조사하여 잡지 못한다면 수역의 죄가 어떤 지경에 이르겠느냐? 너희를 또한 나라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많은데 이때 갚기를 도

26) 交隣之際 出疆之行 居間辭意 專憑譯舌 當初設置 至爲緊關 到今事變之後 尤信其不可不擇也 首譯崔鶴齡李命尹 雖不如古昔名譯之多識慮善倭語 蓋其爲人則俱頗緊束矣 曾按萊府時 鶴齡則以已往事見過於余 及差是行 余果蕩濳而任之 命尹則自以謂受恩於余者也 今番事變之後 余謂兩人曰 賊人如不查捕而正法 則首譯之罪 當至何境爾等亦受 國恩者多 不於此時圖報而何 兩譯皆曰 國家之置譯官 正爲此時之用 罪人如不得償命 則小人等甘就邦憲 且小人等皆爲受知於使道 使道任使小人等 亦在此時何可畏死而緩忽乎 謹當盡心力而圖之云云 故余亦專委而任之 兩譯晝夜不怠 多方用計 果得成其查獄 是謂至誠做去 無物不得也 鶴齡以其都首譯之故 所關爲優 且其弟鳳齡 頗爲勤幹 且多效勞於今番事 並宜有論償之典 而余方待勘 何可論人之功勞乎

모하지 않으면 어느 때이겠느냐?” 하였더니, 두 수역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역관을 두는 것은 바로 이런 때 쓰기 위함인데, 죄인이 만약 상명(償命)되지 않는다면 소인 등은 나라의 법을 달게 받겠습니다. 더구나 소인 등은 다 사포의 알아주심을 받고 있으며 사포께서 소인 등을 부려 쓰신 것 또한 이런 때를 위하신 것인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소홀하겠습니까? 마땅히 마음을 다해 힘써 도모하겠습니다.” 하였다. 나 또한 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두 역관은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고 갖가지 피를 써서 과연 옥사(獄事) 조사를 성공시켰으니, 이것이 이른바 ‘지성으로 하면 얻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리라. 최학령은 도수역(都首譯)인 때문에 관계한 일이 우수하였으며 그의 아우 봉령(鳳齡)은 자못 부지런한데다가 이번 일에 공로가 많으니 둘에게 다 논공행상이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마침 옥사의 마감을 기다리는 중이니 어찌 그 공로를 논하겠는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살인사건을 두고 조선과 일본의 응수가 치열했는데, 무엇보다도 뛰어난 역관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기의 내용 가운데 ‘雖不如古昔名譯之多識慮善倭語’ 다시 말해 역관 崔鶴齡, 李命尹의 일본어 실력은 그다지 신통치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명역관의 자질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古昔名譯’은 아마도 앞 시대의 박대근(朴大根)²⁷⁾, 홍희남(洪喜男)²⁸⁾, 강우성(康遇聖)²⁹⁾, 윤대선 등과 같은 뛰어난 명역관

27)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왜군의 상황을 정찰한 공으로 서부참봉(西部參奉)이 되었다. 전란 후 왕명으로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사신과 담판하여 왕릉(王陵)을 훼손한 왜인(倭人)을 색출하였다. 그 공을 인정받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았다. 그 뒤 여러 번 사신을 따라 일본에 갔으며, 또 선위사(宣慰使)를 따라 부산에 가서 포로로 잡힌 남녀 수천 명을 쇄환(刷還)하는 데 힘을 썼다. 최고 관직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28) 1595년(선조 28)~?. 조선 후기의 역관(譯官).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자열(子悅). 임진왜란 이후 대일 관계의 수행역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1년 동안에 3계급이나 특진하여 나이 50세가 되기 전에 승록대부(崇祿大夫)의 위계에 올라 1644년(인조 22)

을 가리키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다. 물론 일본에서도 통사의 필요성은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州)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³⁰⁾

조선에서 상근할 御役人과 관수, 재판, 대관(館守裁判一代官)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 교린외교를 위하여 통사만큼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물론 이것은 일본 측 조선어 통사를 가리키는 것이나 조선 측의 일본어 통사에게도 필요한 지적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贅言試集』에는 역관의 자질을 논한 문답³¹⁾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일본에 여섯 번, 대마도(對馬島)에 여러 차례 다녀왔고, 명나라 에도 두 번 사신으로 다녀왔다. 1649년 인조의 국상(國喪) 때 일본의 조제사(弔祭使)가 한양에 와서 진향(進香)하려고 하자, 이 문제로 부산에 내려가서 그 절차를 정하였으며, 그것이 그 뒤 일본사신의 전례가 되었다. 1657년(효종 8)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에게 일본에서 본 유황(硫黃)의 위용을 말하여 왕에게 그 필요성을 진언하게 하고, 1659년 문위사(問慰使)를 수행하여 일본에 가서 유황의 산화법(酸化法)을 배워와 우리나라에 전파시켰다. 1659년(현종 1)에도 대마도에 다녀왔다.

- 29) 1581년(선조 14)~?, 조선 중기의 역관. 본관은 진주(晉州). 그의 생애에 관하여 단편적인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는 주교수(籌教授) 유경(有慶)이다. 1592년 10월 당시 12살이었던 강우성은 진주성 함락으로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 오사카(大阪)와 교토(京都) 부근에서 10년 동안의 억류생활을 보냈다. 1601년 6월에 남너포로 250명 송환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약 10년간의 억류 생활을 통해 체험한 일본의 풍속과 언어를 바탕으로 1609년(광해군1) 역과(譯科)의 왜학(倭學)에 합격하였으며, 전후 다섯 차례에 걸쳐 부산훈도(釜山訓導)에 임명되어 일본과의 통상외교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1617년과 1624-1636년 역관으로서 연속 세 차례나 일본에 다녀왔는데,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 쇄환에 전력을 다하였다. 품계가 가선대부에 이르렀으며, 저술로는 일본어 학습서인 『첩해신어(捷解新語)』 10권을 남겼다. 이 책의 원고가 모두 완성된 시기는 1625년 이후에서 1636년 이전으로 추정되지만, 책이 실제로 간행된 것은 1676년이었다. 1678년부터는 이 책이 사역원 왜학의 대표 학습서로 쓰였다.
- 30) 朝鮮ニ相勤候御役人館守裁判一代官ハ勿論の事に候、其外ニハ隣交之儀通詞おり切要なる役人は無之候 安田章, 앞의 책, 1980, 6쪽.
- 31) (問)以前之判事衆者、何れも日本詞達者ニ爲在之由伝候、近來之ごとく御座候而

問) 이전의 역관들은 일본어에 능통한 자들이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와 서로 통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애써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答) 때마침 통사의 일은, 근래 능통한 역관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음 한켠으로 편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최근 자질이 떨어진 역관들의 일본어 실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당상역관의 보행에 관하여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부산의 왜관에 출입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으나 통신사의 당상역관으로 임명되면 곧 소동(小童)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여 보행하거나 권위를 보이듯이 했다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州)가 일본어 학습에 관하여 申維翰과 나눈 담화를 『申製述海遊錄』(下) 附聞見雜錄³²⁾에서 살펴보면,

내가 아메노모리에게 말하기를, “제가 일본말을 배운다면 몇 달이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중국말은 수개월이면 되겠고, 조선말은 1년이면 되겠으나, 일본말은 비록 총명이 남보다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코 능하지 못할 것입니다.”하였다.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는 한중일 세 나라의 언어 습득의 난이도에 관해 간명하게 표현하였다. 한편 역관의 일본어 이해도가 뛰어난 사례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者不相濟事二候、折角御心掛有定度存候 / (答)丁度仰之通、近年者堪能之同官無之、我々も心外ニ存る事二候、成丈心掛可申候

32) 余謂雨森東曰 使余學得日本語 當用幾月而能 東曰 華語可數月而能 鮮語可一年而能 日本語 雖聰明過人 非三年不可能

강홍중의 『東槎錄』에 의하면 1711년 압물통사 김현문(金顯門)이 어느 네덜란드인이 나가사키(長崎)에서 에도(江戶)로 향하는 배편을 문의하자 김현문이 곧 일본어로 대답하여 양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역관 외 수행역이 현지에서 체험한 일본어에 대한 인식은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1748년 종사관 조명채(曹命采)의 『奉使日本時間見錄』 「四月十四日丁卯」³³⁾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前略) 또 하나의 병풍에 쓰인 옛 글이 부채에도 쓰인 연유를 물었더니, 이는 모두 옛날 왜국의 뛰어난 사람들의 필적이며, 그들이 보배로이 간직하는 것이라 했다. 거의 대부분은 왜언(倭諺)으로 보이지만, 어떤 것은 청나라 만주문자와 같아서 알아볼 수가 없다.

조명채가 인식한 왜언(倭諺)은 ‘가나(假名)를 가리키는 것이며, 청서(淸書)는 만주문자(滿洲文字)와 유사하다고 한 언설이 흥미롭다. 이와 같이 통신사일행 중에는 역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예컨대 유학자 야마미야 세츠로(山宮雪樓)³⁴⁾는 제술관 박경행(朴敬行) 등과 나눈 필담창화(『和韓筆談薰風編』)에서 같은 해 6월 9일 사자관(寫字官) 金天壽(혹은 金天秀)이라는 사람은 일본문자(いろは四十七文字)³⁵⁾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

33) (前略)又有一屏 付扇帖古書 問之此皆古倭中名顯者筆蹟 而渠輩之所寶藏也 多是倭諺而類淸書 不可解矣

34) 생몰년 미상, 에도(江戶)중기의 유학자. 이름은 維深, 字는 仲淵, 통칭은 官兵衛, 別号는 翠漪였다. 교토의 三宅尙齋에게 사사 후 徳와(出羽)의 龜田藩(현재 秋田縣)의 유관(儒官)이 되었다. 이후 무사시(武藏)의 川越藩(현재 埼玉縣)에 옮겨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皇統授受図」(1733년), 「日本八朝記聞」등을 남겼다.

35) 불교의 色卽是空, 空卽是色, 諸行無常 등의 사유를 암시하고 있다.

나라, 와카(和歌)에도 조예가 깊어서 일본 최초의 칙찬집 『古今和歌集』의 노래 「기미가요(君が代)」³⁶⁾를 보고서 흥미로운 노래라고 일본어로 대답할 정도였다고 하였다. 이 책의 하권³⁷⁾에서 김천수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역관은 물론이거니와) 김천수에 이르기까지 일본어에 능통하였고 와카를 즐겼으며 나아가 조선의 풍속(箕邦之俗)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니와, 마침내 일변하여 우리 일본의 풍속(我神州之俗)에 이를 수 있었으니, 내 비록 미관말직(草莽之臣)에 지나지 않으나 어찌 이와 같이 손뼉을 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로써 寫字官 김천수는 일본어와 와카에도 상당한 조예와 일본문화의 이해자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色は匂えど散りぬるを(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언젠가는 지고 만다.)
 我が世誰ぞ常ならむ(현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하다.)
 有爲の奥山今日越えて(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 있다면)
 淺き夢見し酔ひもせず(현세의 사건 등은 얕은 꿈과 같으므로 결코 세상과 부합하지 않겠다)

36) 久曾神昇, 『古今和歌集(二) 全譯注』 講談社, 1982, 175쪽.

「君が代」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わが君は千代にましませざれ石のいはほとなりて苔むすまでに(原本 『古今集』 初稿本 『和漢朗詠集』)

わが君は千代にましませざれ石のいはほとなりて苔のむすまで(『和歌体十種』 『和歌十体』 『古今和六帖』)

わが君は千代に八千代にさざれ石のいはほとなりて苔のむすまで(精撰本 『和漢朗詠集』 『深窓秘抄』)

君が代は千代に八千代にさざれ石のいはほとなりて苔のむすまで(歌謠 『古今集』 顯昭注 『捨玉集』 所引)

헤이안(平安) 시대 말기부터 「わが君」에서 「君が代」로 변화되었고, 연회 후 공식적으로 부르게 되었다.

37) 已至金天壽能通和語 喜和歌 卽亦最知箕邦之俗 遂可一變以至於我神州之俗矣 僕雖草莽之臣 而豈可爲此不拊歡呼

Ⅲ. 통신사 역관의 일본 시가문학

1. 현덕연(玄德淵)의 와카(和歌)

일본의 조선외교 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통신사의 방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통신사 수행 역관들의 비문학적 소양을 비난하여 조선의 역관은 일본의 정형시 和歌(38) 한수도 제대로 짓지 못한다는 불평을 담은 서찰(39)을 자신의 지인 사쿠마 도간(佐久間洞巖)(40)에게 다음과 같이 보냈다.

중국과 조선인은 일본의 시문을 보고 입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일이지만 일본인은 재능이 뛰어나서 저 정도까지 시문을

38) 와카(和歌)는 '아마토우타(大和歌)', 즉 '일본의 노래'의 준말로서 일본의 사계절과 남녀 간의 사랑을 주로 노래한 5·7·5·7·7의 31음으로 구성된 정형시이다.

39) 中土并朝鮮の輩のこなたの詩文見候てはよめぬよめぬと申すいはれなきしみあらず候へども、日本はよくよく人の才のうるはしく候へばこそかほど迄には詩文をももてあつかひ候事に候、其故は詩文などは此國の本色の事にてなく候をたゞただ學びにてとりなし候事に候扱、又倭歌は日本の本色のものに候、琉球人は南倭として、此國と同じ地脈の國に候故に、名歌もよみ出しもの有之候、年々に長崎に來り候て日本口に通じ候ものも。況や朝鮮にては和學及第とて日本の書ども學び候事既に三百年來の事に候へども、歌一首のこというに及ばず、一句にて讀みなし候事はふつちとならず候、彼方のものどものふつとならぬを以て見候へば、此方の人々のよめぬまじりにも詩文をとりあつかひ候は、才のうるわしく候事しられ候と申すことに候。『佐久間洞巖宛書簡』, 『新井白石全集』第五卷, 1905~1907, 430쪽.

40) (1653-1736) 江戸 중기의 儒者·서화가이다. 센다이(仙台) 출신, 본래 성씨는 新田, 이름은 義和, 字는 子巖, 통칭 丁徳·彦四郎, 별호 容軒·太白山人이다. 센다이한(仙台藩) 소속 환인 사쿠마 유토쿠(佐久間友徳)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림은 가노 도운(狩野洞雲), 글은 사사키 시즈마(佐々木志頭磨)에게 배웠다. 유사 보쿠사이(佐佐木齋)에게 儒學을 배웠고, 센다이한 역사(仙台藩史) 교정 작업에 참여했다.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오구 소라이(荻生徂徠) 등과 서신에 의한 교류가 많았다. 『奥羽觀跡聞老志』 및 『伊達便覽志』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문 등은 이들 나라의 본색이 아니라 그저 배워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마토우타(倭歌)야말로 일본의 본색입니다. 류큐인들은 南倭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지맥의 나라이므로 뛰어난 노래를 읊은 것도 있습니다. 해마다 나가사키(長崎)를 통하여 일본의 정신과 통합니다. 그러나 조선에 있어서야 그들은 왜학급제 등이다 하여 일본의 글을 배운지 이미 300년의 일입니다만 와카 1수를 읊지 않습니다. 한구라도 읊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써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 역시 채 읽지 않고서도 시문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재능이 뛰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평은 왜학역관에 교양에 대한 그의 무지와 선입관에서 초래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손순옥은 “통신사가 왕래한 지도 어언 150년의 세월이 흘러 사절단의 일행 중에는 일본의 서민문학인 하이쿠를 이해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⁴¹⁾ 고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시가문학에 접한 인물의 존재는 짐작할 수 있겠다.

필자는 본고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 자료 가운데 『桂林漫錄』(上)⁴²⁾에 수록된 『외국인영가(外國人詠歌)』라는 소재목 이하 청나라 사람(淸人)과 함께 각각 2수의 와카(和歌)를 발견하였다. 이에 한인의 작품만 살펴보기로 한다.

○韓人詠歌

秉穗錄ニ載ス。延享戊辰。來聘ノ朝鮮人。詠ル歌。

韓人

トシテナンノンセントンチャトラスンパネイ킬네이라치얀바

41) 손순옥, 『조선통신사와 치요조의 하이쿠』, 한누리미디어, 2006, 35쪽.

42) 森島中良(1754~1810), 東都(江戸): 山田屋長兵衛, 1800(寛政12), 14쪽.

チンビラ

中良按ニ。是ハ韓語ニテ詠ルナリ。譯文無ヲ遺憾トス。往年或人ノ
扇面ニ。鷄林ノ立德淵。字ハ仲舉ナル者ノ平假字ニテ詠歌ヲ書タル
ヲ見。其口氣大ニ熟シタルモノナリ。

明日ハマタ誰ナカランモ知ラヌ身ニ友アル今日ノ日社惜ケレ

ト云歌ナリ。予韓人ノ書タル發句一弓ヲ藏ス。影寫シテ下ニ見
(以上、桂林漫錄·上)

로 기록되어 있다. 오카다 신센(岡田新川)의 『秉穗錄』(1799)에도 수록되어있다는 점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인(韓人)의 첫 번째 와카는 해석도 없으며 평가할 만한 수준 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함량미달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의한 최초의 와카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작품은 필자의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현덕연(玄德淵, 1694~?)의 와카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현덕연(玄德淵)은 동래부 소속 왜학훈도와 역관통신사행 왜학 역관으로 활약한 현덕윤(玄德潤, 1676~1737)의 아우이며, 동래부 소속 왜학역관 가운데 일본 시가문학의 호출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인물이다. 延享戊辰(1744~1748)이라는 시점도 아래에 제시하는 『文會雜記』⁴³⁾와 『有斐齋雜記』⁴⁴⁾에도 1748년(영조24) 통신사행으로 온 현덕연에 관하여 다음의 구절⁴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 유야사 죠잔(湯淺常山, 1708-1781) 에도(江戶) 중기의 유학자, 備前岡山藩士, 이름은 元禎, 常山은 그의 호이다. 핫토리 난카쿠(服部南郭)에게 고문사학(古文辭學)을 배웠다. 藩의 寺社·町奉行을 거쳐 判形役으로 승진했으나 重臣들의 모함으로 칩거에 들어가 만년까지 저술활동에만 전념하였다. 대표저서 『常山紀談』등을 남겼다. 『通航一覽』卷111, 320쪽.

44) 譯官和歌·玄德淵(疏窩)(延享5年)·墨蹟軸裝紙·本墨書·幽玄齋田藏·日本の文字(仮名交じり), 韓國古書畫圖錄, 260쪽.

이때 조선통신사 방문 한해 전, 통신사 의전례에 관한 상담으로 엔쿄(延享) 연간에 방문한 원덕원(元德淵) 자 중거(仲舉)라고 하는 역관이 쓰시마에 왔다. 그는 역관으로서 왔다. 한객이 쓰시마(對馬)의 가로(家老)와 이별을 아쉬워하며 와카 한수를 읊어서 증명하였다. 종이 한장은 ‘석별’이라는 2글자를 크게 썼고, 관방인(關防の印)을 찍었다. 또 다른 종이에는 히라가나로 와카를 썼다.

내일이면 또 / 누군가 떠나실지 / 알 수 없거늘 / 벗과의 이별이란 /
아쉽기만 하구나

라고 써서 元德淵拜라고 써서 압인하여 증명하였다. 그 서물을 그 곳에서 하리마의 무로쓰(播磨室津)에 계신 遠文哲 대인에게 보냈다. 그로부터 또 진귀한 것이라 생각하여 히메지번(姫路藩)의 아무개씨에게 보냈다. 지금 그 집의 병풍에 붙어있는 바 遠文哲 친히 말씀을 하였다.

그런데 이 노래의 출처는 일본가집(國歌大觀)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동래부의 왜학훈도 현덕원이 어떤 경로이든 대일무역 통상 외교업무를 맡으며 교섭한 일본의 조선어 통사와 교류하면서 일본의 전통 시가집을 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이쿠가 아닌 와카를 창작할 정도라면 적어도 일본 최초의 가집이라 일컫는 만요슈(『万葉集』)와 905년 성립된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이하 하치다이

45) 申の歳、韓人來聘の前年、其使事の禮の聞合にとて、延享年中に來りたる、元德淵字仲舉という一韓官對馬州に來る、譯官として來りける、右の韓客某對馬州の家老に別れを惜しむとて、和歌を詠して書して贈りける、其書一紙には、惜別の二字を大書して、關防の印をおしたり、一紙には歌をかく平仮名に書けり。

明日はまた誰なからんも知らぬ身に友あり今日の日こそ惜しけれ
と書いて元德淵拜とかきて押印して贈りける。其書を彼地より播磨室津の人園文哲の大人に贈りしを、それより又珍きものなりとて姫路藩の某氏に贈る、今其家の屏風に張りてあるよし、園文哲親らこれを話せり。

슈(八代集)의 전통을 충분히 체득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덕운이 쓰시마의 중신에게 피력한 작품은 일본의 10세기의 가풍을 담은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의 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작품은 일본인 가인이라 하더라도 쉽사리 읊을 수 없는 수준작이다. 현덕운은 중국 한시적인 착상을 바탕에서 석별의 정을 기교와 수사법 등을 골고루 구사하고 있으며 이지적인 작품세계의 재현에 성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록상 조선인 최초의 일본문학의 이해자이며 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

2. 변문규(卞文圭)의 와카와 하이쿠

조선후기 통신사행과 문위행 참여 역관들의 역과 입격 현황에 의하면 卞文圭는 1801년(순조1) 增譯(倭學)의 입격 확인을 할 수 없으나⁴⁶⁾ 소통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상통사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1811년(순조11) 쓰시마에 과전된 마지막 통신사행 즉 역지통빙(對馬易地通聘) 때 수행한 왜학 상통사 변문규 와카 1수와 하이쿠⁴⁷⁾ 1구를 남기고 있다.

해마다 봄날 / 요시노에 피었던 / 깊은 산 벚꽃 / 베어 낸 나무 속에 /
 행여나 꽃잎 있을까
 年毎耳 / 咲也吉野乃 / 山櫻 / 木遠王利天見与 / 花能有加王 (梅軒)⁴⁸⁾
 年毎に 咲くや吉野の 山櫻木を割りて見よ 花の在りかを

46) 김두현,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의 가계와 혼인」,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321~32쪽.

47) 上通事和歌・卞文圭(文化八年)・墨蹟・短冊・1枚・法量不明・紙本墨書・李元植所藏, 朝鮮通信使と江戸時代の人々, 18쪽; 朝鮮通信使の研究, 470쪽.

48) 年毎に咲くや吉野の山櫻木をわりて見よ花のありかは / 年毎に咲くや吉野の山櫻木を割りて見よ花の在りかを

이 노래의 원작은 반야심경(般若心經)과 관련된 잇큐(一休)의 작품이다. 5구째가 『ありかは』와 『ありかを』가 상이하다. 일화에 따르면 어느 난폭한 수행자가 부처가 깨달은 진리의 소재를 따져 물었을 때 잇큐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수행자가 ‘ 그렇다면 봐야겠다’며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어 다가섰다. 잇큐는 와카 한수로써 목숨을 구했고, 난폭한 수행자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노래의 배경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통사 변문규의 자의식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는 표기부터 가나(仮名)를 전혀 쓰지 않고 한자의 일본식 변용체인 만요가나(万葉仮名)를 구사한 점이 특색이다.

자연을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의 도래를 왜곡 없이 상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만개하는 요시노산(吉野山)의 벚꽃을 가리키는데 겨울에 가면 고목밖에 없다. 봄에 그토록 만개했던 벚꽃이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하고 고목과 같은 벚나무를 잘라보아도 꽃잎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겨울은 꽃을 피우게 하는 세력으로서 나무마다 비축된 힘이 봄이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 벚꽃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인간의 행위를 업이라고 한다.

그 행위는 결과를 생산하는 힘, 즉 업력이 되어 자신에게 비축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그 업력이 결과가 되는 계기를 연(緣)이라고 한다. 씨가 없으면 꽃은 피지 않으나 봄이라고 하는 인연이 없다면 꽃이 피지 않듯이 업력도 인연에 의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면 인연을 만나지 못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봄을 상징하는 벚꽃은 만요슈(『万葉集』) 편찬 당시는 매화가 지배적이었다. 벚꽃은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이후 봄의 대표적 경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므로 변문규는 매화를 선택하는 대신에 표기는 고대 일본의 이 미지가 뚜렷한 만요가나(万葉仮名)를 사용하였고 내용은 이지적인 고

킨와카슈(『古今和歌集』)의 특징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어서 하이쿠의 표현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 울음소리 / 님의 소식 맞으려 / 두견새 소식
初聲ハ / 聲以會計 / 杜鵑(梅軒)⁴⁹⁾

변문규의 가나(假名) 기괴 현상은 하이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漢字로 표기하고 단 한자만 가타카나(片假名)로 나타내었다. 句作은 붕카연간(文化年間, 1804~1818)이라면 이미 天命調와 하이쿠 시인 요사 부순(與謝蕪村)의 영향이 큰 시기이다. 마쓰오 바쇼의 가풍(蕉風)라고 하기 보다는 단린후(談林風)와 유사한 작풍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일본시가문학을 향유한 왜학역관들이 추구한 가풍의 하나로 판단된다. 단린후(談林風)는 오사카(大坂)의 니시아마 소인(西山宗因)⁵⁰⁾을 중심으로 엔보년간(延寶年間, 1673-1681)에 성행한 하이카이 유파이다. 데이몬일파(貞門一派)⁵¹⁾의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기발한 가풍과 자유로운 표현양식을 취했다. 이와 같은 작풍에 왜학역관들은 관심을 두었고 필요에 의해 일본인을 통하여 하이쿠 시집(俳集)을 그들

49) 上通事俳句・下文圭(文化八年)・墨蹟・短冊・1枚・法量不明・紙本墨書・天理大學付屬天理図書館古義堂文庫, 朝鮮後期通信使と韓・日交流史料展, 94, 117쪽.; 朝鮮通信使の研究, 587쪽. 初聲は聲以ていそげほととぎす

50) 江戸 시대 전기의 連歌師이자 俳人(605-1682)이다. 京都에서 사토무라 쇼타쿠(里村昌琢)에게 連歌를 배웠다. 이후 大坂天滿宮의 連歌所宗匠이 되었다. 俳諧에 관심을 기울여 輕妙한 句風の 談林俳諧를 대성시켜 貞門派를 압도하였다. 門下에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 등을 배출하였고, 連歌 작품은 「伏見千句」, 俳諧는 「蚊柱百句」 등을 남겼다.

51) 江戸前期의 俳諧流派 및 그 俳風을 말한다. 談林의 新風・異風에 대하여 古風・正風이라고도 한다. 貞門이란 마즈나가 데이토쿠(松永貞徳)의 俳門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토쿠(貞徳)를 중심으로 하는 하이카이 유파를 가리킨다. 16세기에서 貞門派가 대두한 17세기까지 약 100년간 지식인의 余技로서 언어유희적인 하이카이와 비속·노골적인 하이쿠(言捨俳諧)가 나란히 성행하였다.

스스로 체득하여 일본 시가문학의 주요 텍스트로 삼아 향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3. 박덕원(朴德源)의 와카와 하이쿠

영조 24년(1748) 제10회 및 영조 40년(1764) 제11회 등 두 차례나 통신사를 수행한 역관 박덕원(朴德源)은 와카(和歌)와 하이카이(俳諧)를 자유자재로 창작하였다.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동래부는 조선의 유일한 대일교섭의 창구였다. 중앙에서 왜학역관인 훈도⁵²⁾와 별차⁵³⁾ 1명씩 파견하였다. 소통사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왜학역관인 훈도 별차를 보좌하는 동래부 소속의 하급역관이다. 이들은 초랑왜관 인근에 있던 초랑촌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왜관의 다양한 실무를 맡고 있었다.⁵⁴⁾ 왜관의 일본인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대일교섭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2명의 통역관이 외교 및 무역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좌하는 하급역관이 바로 소통사이다. ⁵⁵⁾중앙에서 파견된 훈도와 별차와 같은 왜학역관을 ‘대통사(大

52) 倭學訓導는 조선시대 일본어 교육을 맡은 사역원(司譯院)의 정구품(正九品) 관직으로 1393년(태조 2)에 정원 2원을 두었고, 사역원 외에 왜인들의 도착처(到泊處)인 부산포(釜山浦)와 제포(濟浦: 진해시 웅천동)에도 중구품(從九品) 왜학훈도(倭學訓導)를 두어 통역을 맡게 하였다.

53) 別差는 동래와 초랑의 시장에 보내던 일본어 통역관이다. 1623년(인조 1)부터 신설된 왜학 별차 1명은 훈도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왜학 역관으로서 경험을 쌓았다.

54) 김동철, 「조선후기 통제와 교류의 장소, 부산왜관」, 『조선후기 속의 일본』, 景仁文化社, 2013, 227쪽.

55)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권3, 술숙]에 의하면, 소통사는 처음에는 16명을 두고 ‘왜학 생도’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실록에 왜어 학습 생도인 ‘왜학생도’라는 호칭이 처음 등장하는 때는 『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 18년[1418] 5월 3일[임자]이고, ‘소통사’라는 호칭이 처음 등장하는 때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7년[1425] 2월 19일[기미] 기사이다. 조선 전기 실록에 등장하는 소통사는 대개 대명(對明) 관련 업무를 맡은 소통사였다. 조선 전기에 동래에 왜학 생도가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通事)’로 본다면 소통사는 동래 지역의 하급역관임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호칭이라 할 수 있다. 외교사절 연향(宴享), 조선과 일본 양국인 왕래 규제, 왜관의 물품관리, 통역 등 일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통신사행·문위행 수행 등 다양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왜관은 조선인과 일본인 양국 문사에 의해 문학적 교류를 나눈 공간이었다. 동래는 왜관 밖의 조선을 알고자 하는 일본인의 욕구와 담장 안 이국인과 이국 문화에 대한 조선인이 욕구가 만나는 곳이었다.⁵⁶⁾ 왜관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간 무수한 동래 지역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소통사 역시 주요한 구성원이었을 것이다. 이른바 변방의 사람들 그 속에서도 초량촌이라는 주변의 공간에 자리하고 있었다. 동래가 중심이라면 초량촌은 그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의 역사를 전개시켰다⁵⁷⁾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통사는 당상역관과 상통사에 비해 실제 통역업무의 담당계층이라 할 수 있다.

역관 박덕원이 통신사 수행원으로서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하여 와카와 하이쿠를 남긴 1764년은 하이카이(俳諧)의 중흥기 덴메이(天明)기(1781-1789)와 간세이(寬政)기(1789~1801)보다 무려 17년이나 앞선 시간대⁵⁸⁾에 뛰어난 작품을 창작한 시기였다. 조선과 일본문학에 나타나는 통신사행원 명단에는⁵⁹⁾ 박덕원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소통사 10인 중의 한명이다. 이하 소통사(小通事) 박덕원이 남긴 하이쿠와

56) 양홍숙,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51-253쪽.

57) 김동철, 앞의 책, 2013, 229쪽.

58) 安永・天明期에 통속화된 하이카이(俳諧)를 거부하고 바쇼(芭蕉)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기치아래 蕉風の 복귀를 주장하여 일어난 하이쿠 사조이다. 요사부촌(与謝蕪村, 1716-1784)·가토 교쿠다이(加藤曉台)·미우라 치요라(三浦桴良)·란코(高桑蘭更)·가야 시라오(加舎白雄)·다카이 기토(高井几董) 등이 주요 시인에 의해서 개혁된 청신한 사조이다.

59) 진영미, 「조선과 일본 문학에서의 통신사행원 명단 비교 고찰-『통신사등록』과 『조선통신총록』을 중심으로-」, 『濼上古典研究』 49, 2016, 327쪽.

와카의 전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평하도다 / 신전의 정월 경단 / 정성을 다해
 泰平や / 具足の餅の / かびる迄 (朝鮮鞆窩)

와 같이 작품뿐만 아니라, 뛰어난 필법(假名書)을 구사하여 일본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 句는 동일한 시어를 구사하면서 상당한 명구이다.⁶⁰⁾ ‘갑옷 떡(具足餅)’은 무가예법(武家故實)의 하나로 매년 정월에 갑주(甲冑)와 떡을 신에게 바치는 연중행사이다. 천하태평을 이룩한 막부의 장군 도쿠카와 이에시게(徳川家重)의 습직을 경하하는 상징인 썸이다. 통신사 역관이 즉흥적으로 지은 작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뛰어난다. 특히 하이쿠의 주요 수사기법을 사용하여 기레지(切れ字)와 종결사(也哉) 등의 구사는 당대의 단린하이카이(談林俳諧)⁶¹⁾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작품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樂郊紀聞』에 의하면 소통사의 일본어 실력을 시험한 구절이 보인다.

소통사 박덕원이라는 사람이 서관에 왔을 때 객사(御送使屋)에 걸려있는 승려와 여인이 한 폭의 그림에 그려진 죽자를 보고 즉석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흥미롭구나 / 도 닦는 승려 앞에 / 여인의 모습
 珍しや / 法師の前に / 女とは
 라고 말하는 고로, 박덕원(此者) 역시 하이쿠를 짓기를
 조선과 일본 / 한 가지 마음 일세 / 달구경 인저

60) 具足餅라는 시어는 우에시마 오니쓰라(上島鬼貫)의 句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我宿の春は來にけり具足餅> 이 句는 『鬼貫句選』上・春에 수록된 노래이며, 봄의 季語이다.

61) 안수현, 『동상이몽의 타자경험, 조선통신사-소중회주의의 허상을 넘어 문학적 상상으로-』, 『朝鮮通信使研究』 22, 2016. 113쪽.

西東 / 同じ心の / 月見哉

라는 구를 읊었다. 이 또한 아국(我國)의 말을 잘 통하는 인물이라 생각된다⁶²)고 평가하였다.

완연한 봄날 / 대나무 마디마디 / 맺힌 이슬은 / 언제나 변치 않을 / 그
대의 깊은 마음

はるをしる / 竹のまがきの / 朝露は / 千代もかはらぬ / いろやそう
らん (朝鮮龔窩)⁶³)

이 노래의 出典을 일본시가자료 國歌大觀에서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 이 작품을 박덕원의 창작이 틀림없다면 앞서 언급한 현덕운의 와카 작품에 이어 조선인이 지은 일본시가로써 대단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내용 또한 전형적인 일본의 계절과 심상을 정확히 표현하여 노래하고 있다. 예컨대 봄의 자각은 대나무에 맺힌 이슬이라는 발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인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와카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그려내기란 일본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문학적 소양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62) (同じ小通事朴徳源というもの西館に來りし時、御送使屋に、法師と女とを一幅に書し掛物を見て「珍しや法師の前に女とは」と申せし由、此者「西東同じ心の月見哉」という句を詠ぜしものなり、是も此方の語に能く通ぜし者と見ゆ) 中村榮孝, 『捷解新語の成立・改修および『倭語類解』成立の時期について』, 『朝鮮學報』 19, 1961.

63) 和歌와 俳句는 서명이 각각 다르다. 和歌는 공식 석상(晴れの場)의 전통 문예이며, 武家故實・公家有職故實과 더불어 양식화 경향이 강하여 만드시 시인 고유의 이름 즉 나노리(名乗り)를 올린다. 俳句의 경우 發句短冊 등의 서명은 俳号를 사용한다. 俳号는 대개 宗匠에게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和歌의 휘호를 俳号에 서명할 수 없다. 그런데 농와(龔窩)라는 아호를 和歌와 俳句의 서명으로 사용한 것은 일본과 같이 한 유파의 宗匠의 지도하에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박덕원이 역관 수행 중 개인적 취향에서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조경안(趙景安)의 와카와 하이쿠

소통사 조경안 역시 정확한 역관가계 및 입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⁶⁴과 더불어 통신사 수행원의 명단에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⁶⁵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원식의 저서 내용 가운데 통신사 역관 일람표⁶⁶에 의하면, 역관 박덕원과 마찬가지로 소통사 10명 중의 한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811년 상통사 변문규와 같이 파견되었다. 그가 언급한 와카 1수와 하이쿠 3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가을 저녁은 / 예사롭지 아니한 / 운치입니다 / 역새 위 부는 바람 /
 짜리 밧 밧힌 이슬
 秋はなほ / 夕まぐれこそ / たゞならね / 萩の上風 / 萩の下露(藤原
 義孝)

이 노래는 본래 『和漢朗詠集』 『秋興』에 나오는 후지와라 요시타카(藤原義孝)⁶⁷의 작품이다. 도치법을 구사한 이 노래는 우선 시어의 선택 가운데 4구(萩の上風)와 5구(萩の下露)째 에 구사한 물억새(萩)와

64) 김두헌, 앞의 논문, 2013, 321~324쪽.

65) 진영미, 앞의 논문, 2016, 321쪽.

66) 李元植, 『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1997, 454~455쪽.

67) 秋はな越 / ゆふまくれこそ / 堂々ならね / 萩のうはか勢 / 萩のした露, 一條攝政伊尹의 三男(四男이라고도 한다)이다. 어머니는 惠子女王이다. 冷泉天皇의 후궁(女御) 懷子は 이모(同母의姉)이다. 源保光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行成을 얻었다. 侍從・左兵衛佐를 거쳐 天祿二年(971) 右少將, 다음해 正五位下, 天延二年, 천연두(疱瘡)에 걸려 9월 16일 아침에 죽은 형 다카카타(學賢)에 이어 저녁에 죽었다. 약관 21세였다. 뛰어난 용모와 불심이 깊었다는 기사는 『大鏡』 『榮花物語』 등의 일화에서 알 수 있다. 그의 생애는 『今昔物語』등에도 설화에 나와 사후 가까운 친척과 벗들의 꿈에 나와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진다. 당대 유명가인 清原元輔・源順・源延光 등과 교류했고 家集 『義孝集』을 남겼다. 拾遺集에 처음으로 그의 노래가 입집되었고 이후 勅撰入集은 모두 24이다. 中古三十六歌仙의 한사람이며 후지와라 데이카(藤原定家)의 小倉百人一首에도 그의 노래가 채택되었다.

싸리(萩)가 흥미롭다. 언어 유희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언뜻 같은 글자를 반복시키고 있는 것처럼 의도하였다. 물억새는 벼과식물이고 싸리는 콩과식물로 전혀 다른 종임에도 닮은 듯 서로 다른 소재를 제시함으로써 지적인 시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상승구조의 바람(上風)과 하강구조의 이슬(下露) 즉 위와 아래를 대비시키고 있다. 바람은 기체이며 이슬은 액체이다. 그렇다면 고체는 작가 요시타카를 상징함으로써 기체, 액체, 고체 즉 물질의 3대요소가 한 수의 와카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이 저녁을 주목한 이유는 땅거미지기 시작하는 시간대는 대상을 시각으로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청각 등 다른 감각을 예리하게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온몸에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저녁이야말로 가을과 어울리는 시간대이다.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보다 주위를 불러오는 바람소리와 체감하는 습기와 같은 촉각 등 가을의 기운을 느낀다.

혹은 싸리의 향기가 맴도는 후각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저녁이 아니면 획득할 수 없는 감각이다. 그러므로 시에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4개의 감각을 동원하고 있다. 시인은 감동은 제3구(ただならね)에 집중시키고 있다. 다섯 글자의 음감에 시인의 감정의 파동을 물억새(萩), 바람(風), 이슬(露) 등 각각의 요소에 대응하여 고스란히 전해진다. 마지막 결구(萩の下露)를 체언맺음(体言止め)로 처리하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한 수 전체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후 가마쿠라(鎌倉)시대에 성립된 센슈쇼(『撰集抄』)에 의하면 작가 요시타카가 13세 때 이 노래를 읊었다고 한다. 아마 무의식적 영감에 의한 작품일 수 있다. 아래 하이쿠 3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조정안은 이와 같은 와카(和歌)의 배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일본고전 시가문학에 대한 조예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이쿠 작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정안은 치소인(癡笑人)이라는 자신의 호를 필명으

로 남겼다.

부평초구나/ 오늘은 건너 절벽/ 꽃이 피었네
 萍屋/ 今朝は阿ちら乃岸に/ 咲(癡笑人)⁶⁸⁾

이 하이쿠 역시 조정안의 창작한 것이 아니라, 에도(江戸) 중기의 하이쿠 시인(俳人) 나카가와 오쓰유(中川乙由, 1675-1739)의 작품이다. 노래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제는 이 절벽에 피어있던 부평초가 오늘 아침은 건너편 절벽에 피었구나. 거기에서 피고 여기에서 피는 것을 보아 이름그대로 정처 없는 매정한 부평초야’라는 의미이다. 나카가와 오쓰유(中川乙由)는 이세(伊勢) 출신이며 마쓰오 바쇼(松尾芭蕉)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같은 제자 시코(支考)와 더불어 경묘통속(輕妙通俗)한 구풍(句風)을 구사한 하이쿠 시인이다. 그 중에서도 이 구는 특히 노래와 관련된 일화가 유명하다. 어느 날 오쓰유(乙由)가 가부키(歌舞伎)를 보러 갔을 때 옆자리에 평소애 아는 유녀가 와 있었다. 다음날 또 갔더니 그 유녀가 건너편에 와 있는 것이었다. “어제는 가까이 있었으나 오늘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라며 유녀가 과자와 하이쿠를 보내왔기에 답가로 하이쿠를 불렀다고 전해진다. 혹은 어제는 오쓰유(乙由) 자신과 함께 온 유녀가 오늘은 다른 남자와 함께 와 있는 것을 보고 상심하여 불렀다고도 한다. 유녀란 본디 뿌리 없이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이 한 곳에 눌러앉는 경우가 없어서 이곳저곳 흘러 다니는 것도 당연하다. 이것을 시인은 인생의 한 면에 담아 노래한 것이다. 살갑지 않게 냉정한 어투로 보여져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이후 평가는 속된 작품이라 비난받은 경우도 많았지만 시로서 음감·어감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

68) 小通事俳句・趙景安(癡笑人)(文化八年)・墨蹟・扇面・1面・紙本墨書・尼崎市教育委員會・李元植旧藏, 朝鮮通信使の研究 586쪽.; ころこの交流朝鮮通信使 155, 233쪽. うき草や今朝はあちらの岸に咲

들에게 쉽게 회자된다는 것은 그만큼 친근하고 쉬운 문학이라는 것이다. 해석 또한 다양하여 우리나라의 노류장화(路柳牆花)에 비할 바 상당히 직접적인 감정을 호소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기도 하다. 이것을 조정안은 의도적으로 비쳐보였는지 단지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조정안은 1811년 통시사행 가운데 역지사행(易地使行)이라는 초유의 외교적 굴욕을 체험했다. 일본 정부의 조선에 대한 노류장화와 같이 돌변한 정책 변화와 태도를 그들의 시가문학으로 풀어내며 숨겨진 메타포를 충분히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조정안이 직접 창작한 하이쿠는 상당히 힘이 넘치는 작품을 발현하고 있다.⁶⁹⁾

파릇한 버들 / 가지 한껏 내밀고 / 물에 뜬 달님
靑柳も / 手を伸してや / 水の月 (癡笑人)

봄의 밤기운을 드러내는 버들가지와 물에 비친 달을 연결하는 기발한 발상으로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뛰어난 수준이라 할 만하다. 이 작품을 통해 구사된 시어와 배열을 통해 평가 할 때 그의 하이쿠 습작기간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의 또 다른 하이쿠 한 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⁷⁰⁾

아버지 얼굴 / 가을을 지킨다네 / 허수아비여
父に似て / 子の這かか類 / 案山子可南

69) 小通事俳句・趙景安(癡笑人)(文化8年)・墨蹟・一紙・1枚・紙本墨書・尼崎市教育委員會・李元植所藏, 朝鮮通信使の研究, 586쪽.

70) 小通事俳句・趙景安(癡笑人)(文化8年)・墨蹟・一紙・1枚・紙本墨書・尼崎市教育委員會・李元植所藏, 朝鮮通信使の研究, 470쪽.

와 같이 봄과 가을의 경물을 추수를 떠 올려 통신사행이 시작하는 봄과 일본에서 맞이하는 가을 어느 날의 정경을 가을 별판에 홀로 서 있는 허수아비에 시정을 집중시켜 한해를 정리하는 시인의 감흥을 담아내고 있으며 역시 일본 詩歌에 정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변문규와 같이 가능한 만요가나(万葉仮名) 표기는 조정안 역시 상당한 자의식의 소유자로 판단된다. 더구나 ‘아버지(父)’라는 시어의 선택은 일반적인 하이쿠에서 유희를 찾기 힘든 경우이며 이는 조선의 왜학역관의 하이쿠 수준이 일본의 하이쿠와 또 다른 차원의 문학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IV. 나오며

본고는 기존의 조선통신사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통신사행 동래부 소속 왜학역관의 일본 시가문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양반 사대부와는 다른 와카와 하이쿠를 이해한 중인역관의 문화교류의 양상실제 창작양상까지 밝혔다. 통신사 문학의 주체를 사대부에서 중인으로 시선을 옮겨 위항문학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이룰 수 없었던 ‘숨긴 문학’의 변외적 성과가 와카와 하이쿠의 재현이다. 소중화의 허상을 고수한 사대부와는 달리 문학적 수용을 통해 조선과 일본 양국의 ‘통신(通信)’의 근본을 지키고자 한 신념은 변함없었으나, 새로운 가능성의 양상은 그들이 습득한 和歌와 하이쿠(俳諧)의 호출이었다. 문화는 상호교류를 전제로 하여 재현과 통합을 반복한다. 통신사행에 참여한 동래부 왜학역관의 일본문학 창작의 문화사적 의미는 외연상 무역 실무 담당자만의 모습뿐만 아니라 문학을 통한 상호이해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언문으로 방치된 한글담론의 대표적 시가로서 시조의 누락을 안타까움으로 남기지만, 현덕언, 변문규, 박덕원, 조경안 등 동래부 소속의 왜학역관들에 의해 생산된 와카와 하이쿠 창작은 통신사 문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와카와 하이쿠를 호출한 만큼 시조담론의 제시를 자각하지 못한 안타까움은 금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평민문학이 활발했던 영조(1724~1776) 연간 조선의 대표 시조가단(時調歌壇)의 중심이었던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에 의한 효와 충의 윤리, 애정과 풍류, 인생무상, 이별의 슬픔 등 주제가 다양⁷¹⁾했던 한글시조담론이 통신사 및 문위행 파견시 공식적으로 일본의 서민문학에 전해졌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교화와 입공의 시선이 팽배했던 통신사의 간극을 메우려 했던 동래부 소속 왜학역관의 일본시가문학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실무교섭 뿐만 아니라 통신사행 파견의 통시적 흐름 속에서 역관층은 자연스럽게 일본 시가문학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대일무역과 외교수행업무만으로 동래부 소속 역관의 전모로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넓은 의미의 위항문학 가운데 소수자 문학담론에 머물렀던 역관들의 일본문학의 향유는 그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물리적인 대일관계 처리보다 보다 근본적인 상호 이해로 다가가는 문화담론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1) 허경진, 『조선의 중인들』, RHK, 2015, 170쪽.

| 참고문헌 |

1. 저서

-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비, 1997
손순옥, 『조선통신사와 치요조의 하이쿠』, 한누리미디어, 2006.
허경진, 『조선의 중인들』, RHK, 2015.
허람린 엮음, 『조선시대 속의 일본』, 景仁文化社, 2013.

- 安田 章, 『朝鮮資料と中世國語』, 笠間書院, 1980.
李元植, 『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1997.

2. 논문

- 구자근, 「근대적 문인장훈에 대하여」, 『문리논집』 7,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3.
김남경, 「조선시대 역관과 번역사에 관한 연구-과거의 역관고찰과 근대 번역사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동철, 「17-19세기 東萊府 小通事의 編制와 對日活動」, 『지역과 역사』 17, 2005.
김두헌,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의 가계와 혼인」,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金瑞蘭, 「朝鮮後期 通信使隨行 倭學譯官 研究」, 『白山學報』 71, 2005.
김양수, 「조선시대의 譯官등 中人活動을 찾아서」 『역사와 실학』 39, 2009.
안수현, 「동상이몽의 타자경험, 조선통신사-소중화주의의 허상을 넘어 문학적 상상으로-」, 『朝鮮通信使研究』 22, 2016.
양홍숙,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9.
任侑奭, 「18세기 委巷詩集에 나타난 中人層의 문학세계」, 『泰東古典研究』 1, 1984.
정병옥, 『조선후기 시가의 변이과정』, 『창작과 비평』 31, 1974.
진영미, 「조선과 일본 문헌에서의 통신사 수행원 명단 비교 고찰-『통신사등록』과 『조선통신총록』을 중심으로-」, 『淵上古典研究』 49, 2016.
천병식, 「委巷文學의 特性과 전개」, 『인문논총』 3, 1992.
한태문,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韓客酬唱』 연구」, 『항도부산』 33, 2017.

- 管宗次, 「朝鮮通信使の殘した發句短冊について」, 『日本文化學報』 9, 2000.
- 管宗次, 「朝鮮通信使による日本語韻文史料 —發句、和歌などの短冊色紙をめぐって—」, 『國際研究集會報告書』 29, 2006.
- 仲尾宏, 「朝鮮通信使の文化交流の受け手—知識人と民衆」, 『國際研究集會報告書』 29, 2006.
- 池內敏, 「譯官使考(稻葉伸道教授退職記念)」,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62), 2016
- 池內敏, 「十八世紀對馬における日朝交流 : 享保十九年譯官使の事例」,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 63), 2017.

투고일 : 2017.11.09. 심사완료일 : 2017.12.4. 게재 확정일 : 2017.12.20.

| Abstract |

Japanese Interpreters of Dongnae-Bu(東萊府)
who performed official duties as Tongsinsa(通信使)
Members and Japanese Classic Poetry

An, Soo-Hyun

The Tongsinsa litera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it is also known, the Higher Yangban-Sadaebu(兩班士大夫) Class who had exchanged a lot of conversations and poetry by writing in Chinese character played a prominent parts between Joseon and Japan.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the Japanese interpreters of Dongnae-Bu who performed official duties as Tongsinsa and participated as another literary activists.

On the other hand, literary activity of Japanese classic poetry such as Waka(和歌) and Haiku(俳句) by the Japanese interpreters did not have the place of discourse.

In the background, a general tendency of those days usually comes from ignorance around Japanese literature. As a result, their Japanese literature was outside subculture and individual hidden scale.

Nevertheless, the Japanese interpreters of Dongnae-Bu were excellent appreciators and poets of Japanese poetry for contributing to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Looking at the Tongsinsa literatures in a new way, by the middle class Jungin(中人), especially the Japanese interpreters of Dongnae-Bu should be conducted.

They were not mere official attendants and interpretation devices belong

to Tongsinsa but acquiring a cosmopolitan outlook at that time.

According to carrying out on correspondence in the middle class, the Japanese interpreters of Dongnae-Bu who made Japanes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ongsinsa Literature. we have to As the main subject of the study on literature carried out on this study.

Eventually understanding and creating of Waka(和歌) and Haiku(俳句) litera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positive diplomatic evaluation by the Japanese interpreters of Dongnae-Bu.

key words : Japanese Interpreters, the Middle Class, Haiku, Waka, Extensity